

평생 소원처호, 혁명의 뜻은 자기 뜻

1492년 8월 3일, 에스파냐의 파로스 항구에 돛이 올라갔다.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아호 3척에 올라 탄 120여명의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자, 이제 출발이다. 서인도 항로 개척을 위한 콜롬부스의 항해에 대장정의 깃이 열린 것이다.

콜롬부스의 발상의 전환, 그의 신대륙발견에 대한 의지는 오늘날 크게 부각되고 있는 벤처정신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역시 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를 떠나, 콜롬부스의 서인도행 배 다탐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낭만적일 수만은 없다. 시장은 리로 따져본다면 그의 항해는 결국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 1세가 투자하고, 콜롬부스가 경영한 하나의 기업형태로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콜롬부스의 모험은 새로운 식민지 획득에 대한 욕구와 신분상승 및 자칭 욕구 충족이란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형성된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IMF시대이다. 각 기업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필연이 되어 가는 정리해고의 줄기는 향후 몇년 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 전망이다. 아마도어만 있으면 누구나 실업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현재기업의 정원은 실직자들에게 혹은 취업대란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실용적 있는 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고졸생 수임과 정형화된 채용방식은 인재들 발굴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통용된 편견을 심었을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창업이 곧 성공이라는 등식은 창립되지 않는 한 경제학과 이장우교수는 그의 저서 '벤처경영'에서, 벤처기업은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벤처기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률과 성장률을 달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창업지원에 대한 민간, 학교, 정부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는 있다' 한다. 아직까지는 산업 후 성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덕목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면서도 실패한 사례는
무엇이든지, 잉그레스(Ingres)가 오라클(Oracle)보다, 슈퍼
컴퓨터(Super Computer)가 리눅스(Linux)보다, 아미가
(Amiga)가 매킨토시보다, 내셔널32032가 인텔80386보다 더
못한 제품이었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는 갈라졌다.

초기시장 개척에 성공한다 해도 지속적인 성공행로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대하고 위험 중 하나는 소수의 선각자들에게 의해 지배되는 초기시장으로 변질되는 위험이 있다. 대규모 소비자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주류시장으로의 이행이 어렵게 존재한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일일적으로 정제된 시장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는 이른바 캐즘(chasm)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선각자들들과 투자자들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국엔 투자유치가 곤란해진다. 관성에서는 갈수록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때 각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결국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

모험 정신만으로는 현실에 성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의 기저에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란 무엇인가? 결론은 단호하다. 기술이란 과학을 바탕으로 한 공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아니요,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의 결과물로만 만든다.

자유의 경제위기에서 벤처기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기대감이 온 사치를 감당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의 형성은 새로운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벤처마인드다. 벤처가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모적인 해답은 결국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연 기자〉

〈최용섭 기자〉

이색 벤처기업 소개

앗, 이것도 벤처?

벤처(Venture)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초로 창업한 소 규모의 창조적인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벤처비즈니스는 여기에 노후유를 포함하여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모험성이 강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이 확실시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수준이 높은 신규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이 강한 기술창업인 또는 기존 기업인이 창업이나 점진적 기술축적을 통해 위험부담은 높으나 성공시 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관련 사업만이 벤처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기술이나 컴퓨터와 관련없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있다.

암에 걸린 쥐, 파종 안한 난, 숨쉬는 벌레 등 생명과학으로 특수질화에 걸린 동물들 만들어 마리당 수백 볼의 돈은 벌어들이고 있는 설립된 지 이제 10개월이 지나지 않는 마크로젠 기업이 바로 그 예이다. 유전자식염구조 출신 식·약산 10여 명이 모여 세운 이 회사는 신약개발을 중용한 암·당뇨에 걸린 쥐, 면역결핍 쥐 등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고 있다. 보통 실험용 쥐의 가격은 2천원대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쥐들은 마리당 보통 3천만원에서 5만만원선이다. 앞으로 스프레스 등 만성질환 동물들을 자체 개발한다는 자이테일의 목표다.

농림벤처로서 오윤바이오텍은 국내 최초로 씨를 뿌리지 않고 조직배양을 통해 난이나 카네이션 등 우량 화훼제품들을 단 기간에 대량 번식시켜 가격도 수입묘목의 절반수준으로 낮춘다. 수입을 줄이고 있다.

이제는 다산고지파 불미우는 관공을 공충을 주력제물로
 올리고는 변처가임인 회영공충과화상시는 독자에게발한 다
 시속기을 이용하여 카운 공충을 백의점에서 파
 면한 다산은 토법에서 카운 공충을 높은 어미를 얻고 있다
 이공충의 일기에도 역시 이같은 변처가임의 재능가
 이공충을 관제발한 재능으로 카산공충의 생상과 들을
 만산시에서 지형의 회영공충이 만산한 점에서는 가장 백
 의점으로 카산공충이 얻어져 카산 공충정장소의 날새는
 이공충의 카산공충에게 얻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상정보사업 시장규모는 연간 2백억엔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 민화 개량으로 청적색계열에 진출한 것은 1964년으로, 국내 시장의 60%를 차지. 1965년만일수에 일본은 1960년 관련 서적시장에도 진출하면 한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성공의 요인이다. 여기에 저평가 자산의 집적인 기술·장비·인력개발을 요인 붙여야 할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벤처기업은 경쟁력 기술력으로 구성된 기업이다. 그 근거가 되었을 부분은 정부로부터 받은 이익을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김윤택 가〉

■인더뷰 - 골드뱅크 김진호 사장

‘튀는 사고’로 세계를 겨냥하자

“일단 한번 저질러 보는 겁니다. 실패
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것
이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도전할 수 있는 젊음을 사랑하는 벤처자
김진호 사장. 그의 도전한 사업은 인터
넷 광고 서비스인 골드뱅크([http://www.
goldbank.co.kr](http://www.goldbank.co.kr))다. “이 분야를 열하고 만
조나 깨나 광고가 나 가면이 있을 수 있
고 내리구요.”

그를 이토록 곤경에 빠뜨린 것은 인터넷 서버는 과연 무슨 작업을 하는 곳일까? 월드뱅크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버는 광고에 관련된 문제를 맞추면 소액의 돈을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것, 채팅 및 미팅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광고

료와 회원들에게 산골을 판매하는 데서 얻는 이익은 차라리 한에 10원밖에 달지 아니하고, 일곱 구십일 위동대회를 열겠다는 데서 오는 이익으로 매우 작은 금액만을 받고 지니려는 것이 회원들의 구미가 닿지는 부모. 사원은 서울에서 30일이요 그들이 받는 봉급도 만원이 넘지 않았다. 그 중 한 사람 가장 어린 아들인 김태수(金泰秀)는 대학생이며 그곳 프로 축구 선수였다. 그는 내 '권궐주'에 도전한 전처의 아내로서 모든 것을 하듯 자치적이라는 취미를 붙여 내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팬클럽들은 어떤 인생을 찾고 있는

그가 인터넷 세계에 미치지 못했. 그는 무엇을 했을까. 경희대 정외과 88학번인 그

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해 온 80년대의
졸업하고 정치에 뜻을 품은 구의원에 출마
하기도 했다. 장남 졸업까지 구성원 비서
로 일하면서 전산 작업을 통해 컴퓨터를
접하다 인터넷에 빠진 것. 그는 여러 우연
천구자를 '유혹', 자본금 50만 원으로 사업
을 시작했다.

오는 4월 1일, 본격적인 상품시장인인
터넷 플라자를 열 계획이고 중소 판매업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실리콘 벨리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요즘은
마케팅 강의를 하던 때도 매일 두시간씩
일들과 대화를 통해 고객 관리, 의견수
합을 하고 있다. 2주일 전 밤새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재미있다"

아비도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있기 때
문이더라.

1976년에 성공한 벤처기업 사장이 된 지금에도 그의 맘 속엔 더 커다란 꿈이 꿈틀대고 있다. "저를 컴퓨터는 방울 거두 대 울트라 생애했잖나. 한때 MS-DOS가 컴퓨터의 표준이었고 유닉스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상용화처 못하는 사토도 많았. 크 다음은 월드와이드 웹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로. 전 그거가 가능하냐고 화산했어." 1년 후 올 봄에이거가 갖나. 올 갖길다는 김진호 사장. 그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는 호랑만 날을 가대어 된다.

〈정순용 기자〉

〈정수윤 기자〉